

국회, 오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北시 험발사 도마

전날 정치분야 이어 이틀째 진행

군당국·한미, 북 정황 사전인지 여부 공방 예상

군내 인권 등 서욱 국방장관 쓴소리 이어질듯

등록 2021-09-14 오전 8:24:11

수정 2021-09-14 오전 8:26:40

김미경 기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는 1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을 한다.

전날 정치 분야에 이어 이틀째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물론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시험 발사 정황을 사전에 미리 인지했지는, 사후에도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군의 정보·대응 능력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불거진 군대 내 인권문제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왕이 중국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하는 등 일본에서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중국의 K팝에 대한 제2의 한한령 우려 및 한미중일 간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예상된다.

국회는 15일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7580초는 126분으로 두 시간 넘게 순항미사일이 비행한 셈이다.